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전주역사박물관, 3일~7월 3일까지 '호랑이가 어흥' 전시·다양한 연계 체험행사도 진행

전주역사박물관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호랑이가 등장하는 옛이야기를 담은 특별 전시회를 연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3일부터 7월 3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어린이를 위한 특별전인 '호랑이가 어흥'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가 등장하는 옛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전시로, △은혜 깊은 호랑이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전래동화와 전주의 향토설화인 △호운석 △남고산 호랑이 바위 등 총 4편의 이야기가 선정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무섭고 때로는 어리석으며 신비롭기도 한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입체적인 그림과 영상, 동화책 읽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농기구, 의복, 목구멍 등 민속품 30여 점을 함께 전시해 동화책에 등장하는 유물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호랑이가 어흥' 특별전 포스터.

이와 함께 이번 특별전에서는 △호랑이굴에

들어가 덕담카드를 받아오는 '호랑이굴 담력 테스트' △다양한 호랑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호랑이의 서재' △호랑이 전래동화를 감상할 수 있는 '호랑이 극장'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이번 특별전 연계 체험행사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1층 교육체험실에서는 '호랑이 가면 만들기'도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행사는 전시 관람 후 SNS 홍보 이벤트에 참여하면 호랑이 가면 만들기 꾸러미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 50개를 선착순 배부하며 소진 시 마감한다.

전시 및 연계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www.jonjuuseum.org)을 참조하거나 학예연구실로 문의(063-228-6485~6)하면 된다.

한편 전주한옥마을 경계전 내 어진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팝아트 그리기, 어진 컬러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꾸러진 '우리가족 체험 한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전주남중 오케스트라 모습.

특색있는 문화예술체육활동 '눈길'

전주남중, 독서캠프·목공체험 교실·오케스트라 공연 등 운영

전주남중학교는 원도심학교 사업 운영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사업과 연계해 매해 가을마다 밤샘 독서캠프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학교 지역특화사업으로 간식 봉사 동아리 학생들은 월 1회 제과제빵 활동을 통해 평화동 지역아동센터에 간식을 전달하는 사업을 2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전문강사를 초청한 전교생 배드민턴 수업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주 관내 중학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공실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학교는 목공거점학교 사업 운영으로 전주 지역의 중학교에 목공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자유학기 활동과 참채 목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

문 공구를 활용한 목공의 기초와 심화 교육을 받으며, 전교생 모두 목재를 이용한 자기만의 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목재벤치나 책꽂이, 책상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2012년에 창단된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도 자랑할 만하다. 20여 종의 관악기와 타악기에 대해 전문 강사를 통한 1인 1악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악기를 접하는 학생들도 집중적인 방과후활동을 통해 연말에는 오케스트라 공연도 한다.

전주 시내 중학교에서 유일하게 남자 농구부도 있다. 이와 함께 공기소총 사격부도 2020년 현대화된 사격실을 갖췄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망으로 만들어진 자생적 자율 동아리로 사재동행 독서토론 동아리와 락밴드 동아리, 포레 상담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정은성 기자

역대 춘향제 기록물 전시회 개최

남원시, 제92회 춘향제 기간 광한루원 담장길·남원다움관에서 진행

남원시는 제92회 춘향제 기간(5월 4일~8일) 광한루원 담장길과 남원다움관에서 춘향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록물 전시회를 마련하며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록물 전시회를 마련하며 춘향제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를 마련했다.



남원 역대 춘향제 포스터 일부.

1931년 남원에서 처음 시작된 춘향제가 어느덧 92회를 맞이하고 이제는 100회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에 남원시에서는 깊어진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춘향제의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기 위해 역대 춘향제에 대한 기록물 전시회를 준비했다.

전시에는 1회부터 91회까지 춘향제 행사마다의 의미를 담은 사진과 설명, 역대 춘향제 행사 포스터 및 춘향제를 주제로 한 영화의 포스터가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사이의 담장길 외벽에 100미터 정도의 길이로 전시된다.

남원다움관에서는 '리메이크(Re:make) 춘향'이라는 주제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벽의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렌터콜러(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림이 바뀌는 기법)방식을 활용한 춘향 영상과 춘향제에 얽힌 추억들을 사진에 담아 전시한다.

특히, 1931년 춘향제 탄생의 공신이었던 남원 권번의 최봉선과 함께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농악단인 '남원여성농악단' 단원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춘향제 기간인 6일(금요일) 11시에 이야기를 듣고 공연을 보면서 즐기는 작은 토크쇼 형식의 공연을 광한루각에서 펼친다.

일제의 무단통치를 넘어 민족말살통치 정책으로 민족의 씨를 말리려 하던 일제에 맞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해 내려가 고자 마련된 춘향제는 자랑스러운 향일문화운동이었으며, 이제는 남원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현대미술 중견작가 3인 초대 전시회 정읍시 열린다

색(色)이 아름다운 현대미술 중견작가 3인 초대전이 5월 한달동안 신대인에 소재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현대미술 중견작가 임개화, 최세경, 황혜성 3인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임개화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색과는 다른 작가의 시선에서 대자연과 교감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최세경 작가는 관계의 다양함을 원색과 유채색으로 표현하고, 인물의 형태를 시각화해 순환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감정적 조각들을 극대화시켜 표현한 작품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파토스와 에토스의 숨결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황혜성 작가의 긍정에너지를 담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되찾을 수 있는 꽃 150여 점도 전시된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지역주민인 황수남 씨가 기증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꽃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